■ 대만의 21세기 제조업 중심 발전 전략

- **대만의 21세기 경제 발전의 핵심 전략**
  - 대만은 1999년에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제조업 육성 중심의 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함

- **핵심 전략 내용**
  - **(대만을 아·태 지역의 제조업 센터로)** 민관 연구소간의 R&D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 R&D 프로젝트 적극 참여 등을 통한 R&D 능력 강화, 핵심 기계부품 육성 전략 등을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대만을 '과학과 기술의 섬'으로 육성, 수출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과 물류시설 개선을 통해 수출 촉진 지구의 기능을 개선함
  - **(10개 이머징 산업 개발)** 통신, 정보, 반도체, 우주기술 등 10개 기술집약적 이머징 산업을 선정하고, 이 분야의 R&D 투자 및 기업 지원책을 마련함

- **시사점**
  - 대만은 **自國의 강점이 제조업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집중함으로서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현실적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이의 핵심 제품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함

대만의 제조업 중심 발전 전략

이 글은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의 *Future Strategies and Outlook(1999)*와 산업개발국(Industrial Development Bureau)의 *Development of Industries in Taiwan Republic of China(1999)*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임

□ 대만의 산업화 수준과 미래 방향

- (현황) 산업 구조, 수출 구조 등을 볼 때 대만 산업은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형으로 변화하고 있음

· 대만 산업개발국에 의하면 전기 및 전자 부품, 정밀기계 등 기술집약 산업의 비중이 1985년 24%에서 1998년에는 40.7%로 증가해 산업구조가 기술집약적 및 고부가가치형으로 변화했음

· 기술집약 산업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6년 33.2%에서 1998년에 56.3%로 증가했음

- (전략 방향) 자유화, 정보화 사회 기반 마련 등을 통해 대만을 제조업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 활동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청사진 마련

· 최근 들어 대만은 자국을 21세기에 선진국으로 도약시키고 아시아 태평양의 중심 활동 지역(operation center)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로 파악

· 이를 위해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자본 이동 제한의 완화, 정보기반 사회를 위한 제도 마련, 환경 보호, 6개 분야[1]에서 대만을 아·태 지역의 중심 발전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점진적 개발 전략 등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음

< 2006년 제조업 목표 >

구 분		1998	2006
제조업 총 생산(10억 달러)		196.3	410.0
산업구조	기초산업(%)	35.8	25.0
	기술집약산업(%)	40.7	52.0
	전통산업(%)	23.5	23.0
R&D 지출 비중(%)		1.14(1997년)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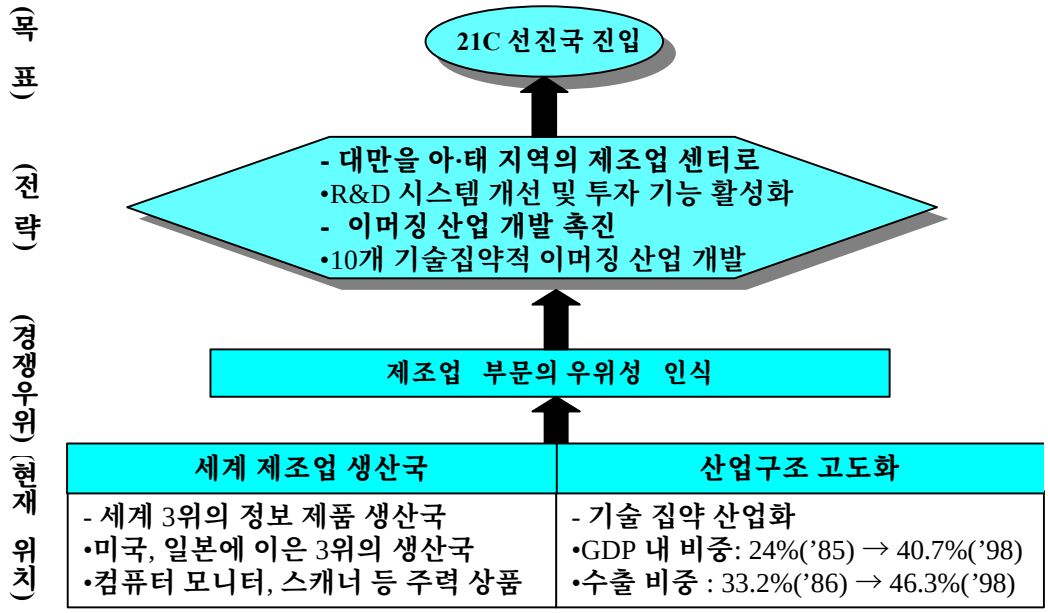
주: 기초 산업 = 화학제품, 석유정제, 고무제품, 플라스틱제조, 철강 등, 기술 집약 산업 = 전기 및 전자부품, 정밀기계, 기계, 수송 등, 전통 산업 = 식품, 담배, 섬유, 의류, 가죽제품, 나무 및 가공제품, 펄프 및 종이, 인쇄, 비금속광물 등

1) 6개 분야는 제조업, 해운, 항공, 금융, 정보통신 및 미디어 등임

□ 핵심 전략 내용

- 대만을 아·태 지역의 제조업 센터로 육성
  - **(R&D 시스템 강화)** R&D 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민간연구소, 국방연구소, 국영 기업 및 민간부문이 신기술 개발을 위해 공동 연구 추진하고, 국제 R&D 프로젝트 참여, R&D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 등
  - **(제품 고부가가치화)** 마이크로프로세서, 반도체 제조 장비, 핵심 기계 부품, 고선명 비디오 및 영상 기기 등 미래형 제품을 선정하고, 우주 기술, HDTV, 컴퓨터 기술, 바이오 테크놀로지 및 제약, 정밀기계 등 5개의 전략 추진팀 구성
  - **(인텔리전트 산업단지)** 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기업의 니즈에 맞는 10개의 산업 단지[2]를 조성해 "과학과 기술의 섬(Science and Technology Island)"으로서 명성을 높이고, 고기술, 고부가 제품 생산 기업의 투자를 유치
  - **(수출 촉진 지구의 기능 개선)** 제조업 기반으로서 수출 촉진 지구의 원스톱 편의 서비스 제공, 항구 및 국제공항 주변 지역에 특화된 물류 지구를 조성해 아·태 지역 제조업 센터로서의 기능을 확충

< 대만의 제조업 중심 발전 전략 >



2) 여기에는 타이난 과학기반 산업 단지(Tainan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윤린 과학기반 업 단지(Yunlin Science-based Industrial Park), 난강 소프트웨어 단지(Nankang Software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투자 기능 활성화)** 투자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해 관련 부처에 나누어져 있는 기능 통합, 정부 역할은 다국적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 지원에 중점

- 10개 이머징 산업의 개발 촉진

· **(핵심 제품 및 요소 개발)** 통신, 정보, 소비자 전자제품, 반도체, 정밀기계 및 자동화, 우주기술, 첨단 재료, 특수 화학 및 제약, 의료 및 보건, 오염 제어 기술 등 10개 기술집약적 이머징 산업을 개발하여 산업의 외국 의존도를 낮출것임

· 핵심 제품 및 요소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파생 연관 제품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66개의 핵심 제품을 선정함

· **(정부 지원 강화)** 1999년에 129억 대만 달러의 R&D 예산 배정을 통해 10개 분야의 제품 개발 연구[3]를 지원하고 있으며, R&D 투자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저리 대출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경쟁 환경 유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10개 이머징 산업의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 제약, 의료장비 등에 관한 정부 조달 규정을 정비함

□ 시사점

- 대만은 제조업에 대한 경쟁우위를 인식하고 대만을 세계 제조업 활동의 중심 기지로 만든다는 장기 전략을 마련함

· 일반적으로 금융, 서비스 등의 높은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자국의 강점인 제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를 통해 미래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산업 정책을 마련할 때, 여러가지 고성장 분야에 대한 산발적 투자를 지양하고 현재의 산업 수준 파악과 동시에 자원을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함

- 10개 미래형 전략 산업의 선정과 발전을 위한 집중 투자 지원

·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전략 산업을 설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유인책을 마련함

· 정부 차원에서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확보해 핵심 제품 개발에 있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음

▌신광철 주임연구원 kcshin@hri.co.kr ☎724-4047

3) 산업기술연구소, 정보산업연구소, 금속산업개발센터, 식품산업개발연구소, 자동화 연구 시험 센터, 바이오기술개발센터, 중국섬유연구소 등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